

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주요국 동향

2004. 10

K O T R A

통상전략팀

목 차

1.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동향	1
가. 국제유가 동향 및 향후 전망 / 2	
나. 국제원자재 가격 동향 및 향후 전망 / 3	
2. 주요국 반응 및 대책.....	5
가. 미국 / 5	
나. 캐나다 / 6	
다. 중국 / 9	
라. 일본 / 11	
마. 독일 / 13	
바. 프랑스 / 15	
사. 영국 / 17	
아. 브라질 / 19	
자. 대만 / 20	
차. 인도 / 21	
3. 시사점	24

1.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동향

가. 국제유가 동향 및 향후 전망

□ 올해 연초부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던 국제유가는 최근 들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고공행진을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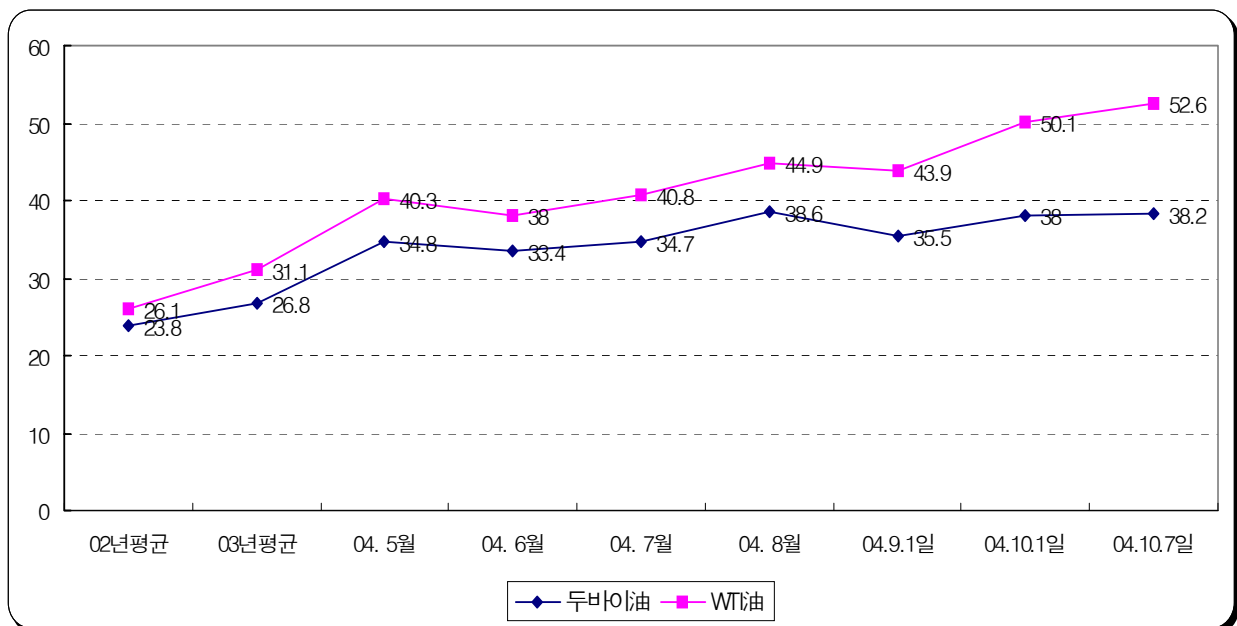
- 두바이油價는 중동정세불안, 러시아 Yukos社 사태 등으로 지난 8. 20일 사상최고치인 41.3\$/b을 기록했으나, 9월 들어서는 이라크 석유수출 회복으로 35~38\$/b에서 등락을 거듭

※ 우리나라 원유수입 중 두바이油 의존도는 79.5%

- WTI(텍사스산 중질유) 유가는 지난 8. 19일 48.8\$/b을 기록한 이후 43~44\$까지 하락했으나, 美 멕시코만 원유생산 차질과 상업용 원유 재고 감소로 10. 7일에는 사상최고치인 52.67\$/b을 기록

<최근 국제유가 동향>

(단위 : \$/b)



자료원 : 산업자원부, 석유공사 자료종합

□ 향후 국제유가는 세계적 석유수요 증대와 공급여력 부족으로 高油價 기조로 전환될 전망

- 2004년 세계 석유수요는 80년대 이래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
- 반면, 원유공급 능력(잉여생산능력, 원유재고량, 원유정제능력)은 70년대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
- 특히,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석유수요 급증은 위와 같은 석유 수급 불안상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
<중국의 석유 수요 및 수입 전망>

(단위 : 천b/d)

구 분	2002년	2010년	2020년	2030년
석유소비	5,632	7,000	9,400	12,000
석유수입	2,040	4,200	7,300	9,900
수입의존도(%)	38.0	60.0	77.6	82.5

자료원 : World Oil Trade, 2003

□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약 80%를 차지하고 있는 두바이유의 경우, 향후 30달러대의 고유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

- 이는 중동지역의 정치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, 중국 등 에너지 多소비국들의 원유확보 경쟁이 한층 강화되고 있기 때문
- 또한, 러시아, 유럽, 멕시코, 중국 등 非중동국의 원유생산이 곧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, 이들 국가의 원유 부존량 감소도 두바이유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

나. 국제원자재 가격 동향 및 향후 전망

□ 2003년 하반기 이후 불안한 양상을 보였던 국제 원자재 가격은 올해 2/4분기 들어 다소 진정되는 듯 했으나, 최근 들어 다시 불안한 모습

- 10. 7일 거래된 알루미늄 3개월 선물가격은 1,860\$/ton으로 지난 9월 초에 비해 약 20달러 상승
- 구리 선물은 10. 6일 장중 한때 3,045\$/ton까지 오르며,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
- 이 외 아연, 니켈, 열연코일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 움직임을 보여 국제원자재 가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

□ 최근의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원인은 세계경제 호조세 지속으로 인한 원자재 수요증대, 유가불안, 중국의 원자재 재고량 감소 등

- 특히 중국의 경우,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, 원자재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

□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

- 철강재의 경우, 올해 상반기의 급격한 상승세가 진정되긴 했으나, 최근 중국의 수요급증, 호주의 철광석 공급능력 한계 등의 불안 요인으로 인해 다시 가격 상승세
- 비철금속의 경우, 미국의 건설투자 확대, 중국의 수요증가로 동, 알루미늄, 니켈 가격 등이 급등세
- 농산물의 경우, 옥수수 및 대두가격이 美 중서부 지역의 기상여건 악화 예보로 상승세

<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>

	2001	2002	2003	2004			
				7월	8월	9월	10.1
<주요 상품지수>							
로이터상품가격지수 ¹⁾	1,178.2	1,368.8	1,664.5	1,528.2	1,538.8	1,544.7	1,545.0
C R B 선물가격지수 ²⁾	190.6	234.5	255.3	267.8	276.5	285.0	285.2
<비철금속 가격>							
銅 (달러/톤) ³⁾	1,460.5	1,542.5	2,318.0	2,917.0	2,843.0	3,137.5	3,125.0
알루미늄 (달러/톤) ³⁾	1,339.5	1,346.7	1,588.8	1,692.5	1,681.8	1,862.5	1,833.0
니켈 (달러/톤) ³⁾	5,858.0	7,115.0	16,583.0	14,080.0	12,720.0	16,580.0	16,038.0
아연 (달러/톤) ³⁾	771.5	753.8	1,003.8	1,030.5	956.5	1,092.5	1,090.0
<농산물 가격>							
小 麥 (센트/부셸) ⁴⁾	289.0	325.0	377.0	312.3	309.8	306.8	303.8
옥수수 (센트/부셸) ⁴⁾	209.0	235.8	246.0	217.3	227.8	205.5	206.0
大 豆 (센트/부셸) ⁴⁾	421.0	569.5	789.0	599.5	627.3	527.0	534.5
原綿 (센트/파운드) ⁵⁾	-	54.8	75.1	43.8	53.8	48.1	48.0

주: 1) 1931.9.18 = 100 2) 1967 = 100 3) 런던시장(LME) 기준
4) 시카고시장(CBOT) 기준 5) 뉴욕시장(NYBOT) 기준
자료원: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(2004-40호)

□ 향후 국제 원자재 가격은 세계경기 호조세 지속과 유가불안 등의 영향으로 꾸준한 상승압력을 받을 전망

- 중국의 원자재 재고감소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, 국제 투기수요 등도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할 우려
- 그러나, 주요국들(특히, 중국)의 경기조절 조치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와 같은 극심한 시장불안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
- 다만, 미국의 경기 호조세 지속, 중국의 긴축정책 유지 여부가 향후 국제 원자재 시장의 최대 변수

2. 주요국 반응 및 대책

가. 미 국

□ 향후 유가 전망

- 원유수급 불안요인으로 인해 당분간 高油價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
 - 전망 근거는 美 멕시코만의 허리케인 피해로 인한 원유생산 차질, 원유재고량 감소, 동절기 도래에 따른 난방유 수요 증가 등
 - 이 외에, Yukos社 사태, 중동지역 정세불안, 베네수엘라 정정불안 등도 안정적 원유공급 불안요인
 - 원유 브로커들은 내년 1/4분기 중 油價가(WTI 기준) 배럴당 70달러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경고

□ 고유가 파급효과

- 고유가 지속은 최근의 경기회복세에 부정적 영향
 - 美 경제인들은 50달러 이상의 높은 원유가격이 지속될 경우, 소비 지출과 신규투자가 축소되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우려
 - 고유가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해 최근의 산업생산 증가세 둔화 가능성
 - 고유가 지속은 교역상대국의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미국 수출에 부정적

□ 정부 및 기업 대책

- 美 행정부의 경우, 아직 고유가에 대비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태이며,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美 경제는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우세
- Exxon, Mobil, Shell 등 석유 메이저들은 향후 추가 유가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,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관심

나. 캐나다

□ 향후 유가 전망

- 올해 4/4분기에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내년 초부터는 하락세로 반전 후 안정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(WTI 기준)
- 대부분의 캐나다 경제기관은 현재 50달러에 육박하는 유가가 내년 초에는 32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

<경제기관별 향후 유가 전망>

(WTI 기준, U\$/배럴)

경 제 기 관	전망시기	'04년 4분기	2004 평균	2005 평균
AJM Petroleum Consultants	2004.10월	44.00	40.18	40.00
BMO Economics	2004. 9월	-	38.00	32.00
Scotiabank	2004. 9월	-	38.00	32.00
Merril Lynch	2004.10월	-	40.30	32.50

자료원 : 각 경제기관별 산업보고서

□ 고유가 파급효과

- 캐나다의 경우 원유수입국이긴 하나 고유가 지속시 수출국으로의 전환이 가능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공존
- 제조업, 운송업 및 일반 소비지출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으나, 원유 수출액 증가로 인한 긍정적 요인이 부정적 영향을 압도할 전망

<高油價가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>

긍정적 영향	부정적 영향
■ Oil sand 채산성/생산량 증대 ■ 유전개발 가속화 및 원유수출 증대 ■ 채굴 기자재 구매 증가 ■ 해외업체의 Oil sand 투자 유치 ■ 원유 생산주 (알버타 등) 소득 증진 및 소비 활성화	■ 운송업 및 원유소비 산업 둔화 ■ 소비자 물가 인상 및 소비둔화 ■ 제조업 원가 상승으로 경쟁력 약화

- 국제유가 상승시 오일샌드(Oil Sand)로부터 추출한 원유생산량이 증대되어 원유 및 관련제품 수출이 증가할 전망
 - ※ 오일샌드 : 원유를 포함하고 있는 초중질류, 모래, 물 등의 혼합물
- 오일샌드의 경우 원유채굴 비용이 높아 저유가시에는 채산성이 떨어지나, 국제유가가 50달러 이상에서 유지될 경우, 채산성 향상으로 원유채굴량이 증가할 전망
- 원유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,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세 유지 전망
 - 제조회가 인상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우려는 있으나, 캐나다 달러 강세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.0~2.5%의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의 분석

□ 정부 및 기업 대책

-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며, 高油價가 지속될 경우 금리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
- 즉, 금리인상을 통한 캐나다 달러 강세로 원유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 물가상승률을 최소화
- 현재 캐나다 운송업체에서 휘발유세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나, 고유가 행진이 장기화되지 않는 이상 세율을 인하하지 않겠다는 것이 캐나다 정부의 기본 입장
- 기업들의 경우, 고유가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나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

□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

- 캐나다의 경우 원유와 마찬가지로 주요 원자재 수입국임과 동시에 수출국이기도 하므로 긍정적, 부정적 영향이 공존
- 철강사용 산업의 채산성 악화, 기업 신규투자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이나, 철강산업 수익성 향상 및 수출증대 등은 긍정적 요인
- 특히, 철강산업은 최대의 수혜업종인데, 최근의 철강가격 상승에 힘입어 그동안의 적자기조를 벗어나 2003년 말부터 흑자로 반전

□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한 정부 대책

- 철강 수입가격 안정을 위해, 기초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치 억제

다. 중 국

□ 향후 유가 전망

- 세계적 원유수급 불안 심화로 당분간 고유가 지속 전망
 - 美 멕시코만 원유생산 차질, 동절기 수요증대, OPEC의 증산 한계와 세계적 원유수요 증가로 인한 수급불균형 심화로 당분간 50달러 이상의 고유가 지속 전망(WTI 기준)

□ 고유가 파급효과

- 고유가 지속으로 GDP 증가율 소폭 하락 전망
 - 세계 2위의 석유소비국, 국내 원유공급량의 1/3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경제는 국제유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
 - 중국 국가신식중심(국가정보센터)은 지금과 같은 高油價가 당분간 계속될 경우, 올해 중국의 GDP 증가율은 당초 전망치보다 0.7~0.8% point 하락 전망
-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제조업 생산원가 상승, 운송비용 증가, 소비심리 위축으로 기업 이윤감소 및 생산활동 축소 우려
 - 자동차 산업은 이미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이윤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, 유가상승으로 소비심리마저 위축될 경우, 생산활동이 더욱 위축될 전망
 - 항공업계의 경우, 운송비 중 연료비용이 25~35%를 차지하고 있어, 高油價가 지속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전망

○ 고유가는 중국의 무역수지에도 부정적 영향

- 고유가 지속시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74억달러 감소할 전망이며, 무역수지 흑자의 GDP기여도 또한 지난해 1.2%에서 0.6%로 하락할 전망

○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

- 유가 상승으로 최근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%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, 고유가 기조가 계속될 경우, 금년 중국 정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(4.0%) 달성이 어려울 전망

□ 정부 대책

○ 시장가격 통제시스템을 통해 고유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

- 중국 정부는 원가와 수급상황을 고려, 석유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있으며, 국영 석유기업이 고시가의 8% 이내에서 매월 한 차례 석유가격을 조정

○ 중국은 60% 이상의 원유를 자급하고 있고 석탄, 천연가스 등 대체 원료 공급이 가능해 최근의 高油價가 장기화 되지 않는다면,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

- 따라서,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으나, 중국 내 원유수요 급증에 따른 중장기 대책을 적극 추진할 전망
- 주요 대책은 원유비축량 확대, 수입선 다변화, 원유선물시장 활성화, 산유국과의 외교협력 강화 등

□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

- 철강 등 주요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물가가 불안한 움직임
 -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5.3% 상승, 7월 물가상승률(5.3%)과 함께 역대 최고 수준
- 원가상승, 시장에서의 경쟁격화로 기업이윤 감소
 - 원자재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업체간 경쟁심화로 공산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, 기업들의 이윤 감소폭 확대 및 이로 인한 한계기업의 퇴출 가속화 우려

□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한 정부 대책

-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정책 지속 실시, 수급균형 유지
 - 긴축정책을 통해 경기과열을 진정시킴으로서, 원자재 수요를 억제하고 무분별한 투자,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원자재 수급균형 유지

라. 일 본

□ 향후 유가 전망

- 45~50달러 수준(WTI 기준)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
 -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발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60달러까지 상승할 우려도 있으나, OPEC의 공급량 확대,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해 45~50달러 수준이 유지될 전망

□ 고유가 파급효과

- 일본은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했고, 에너지 이용효율도 우수해 유가상승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
 - 현재 일본의 명목 GDP 대비 원유수입액 비율은 1980년 전후의 5%에서 1% 수준으로 하락
 - 실질 GDP에서 최종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(1970년=100)도 1차 오일쇼크 당시의 104.3에서 현재는 약 70으로 하락
 - 1백만불의 GDP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원유환산 에너지량 지수도 OECD 회원국 평균(191.3)보다 훨씬 낮은 92.2로 에너지 이용효율 또한 매우 우수
- 다만, 고유가 지속으로 인해 세계 경제 회복세가 주춤할 경우, 현재 일본 경제의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수출호조세가 둔화될 것을 우려

□ 정부 대책

- 일본 정부의 경우, 현재 특별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지 않은 상황
 - 향후 유가추이에 따라 기업인 대상 에너지효율 향상지도 강화, 국제 기구를 통한 OPEC의 증산 요청 등의 대응활동 예상
- 일본은 1차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효율성 향상, 대체에너지 개발, 안정적 에너지 확보 정책 등을 적극 추진
 - 주요 정책으로는 원유 수입선 다변화, 산유국과의 협력 강화, 비화석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, 에너지 고효율 이용기술 개발 등

□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한 정부 및 기업 대책

- 정부 : 철강,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, 민관협업체 구성
 - 협업체 운영을 통해 투기적 거래 감시, 원자재 확보대책, 해외 자원개발 문제 등을 협의
 - 이와 함께 중장기적 대책으로 제철원료, 비철금속 등에 대한 비축 제도 방안 등을 연구
- 기업 : 가격인상을 통해 원가상승 보전
 - 운송업체는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을 운임비용 인상을 통해 보전
 - 반면, 최종소비재 생산기업들의 경우는 원가상승분을 제품가격에 반영시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체적으로 원가상승분을 흡수하고 있어 수익성 하락

마. 독 일

□ 향후 유가 전망

- 당분간 고유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
 - 독일 경제연구원에 따르면, 2005년 평균유가는 40달러 수준(WTI 기준)이 될 것이며, 10~30년 후에는 50달러, 50년 후에는 100달러 수준
 - 동 연구원은 최근 들어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져 유가 상승이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

□ 고유가 파급효과

- 독일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독일 재계도 같은 입장
- 독일 은행연합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, 2004년 독일 경제성장률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분석

□ 정부 대책

- 단기적 정책보다는, 고유가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으로 높은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“연방정부 기후보호 프로그램” 추진
- 동 정책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2010년까지 2배로 확대(2003년 : 3.1%)
- 전체 전기사용량 중 재생가능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10%에서 2020년에는 20%까지 확대할 계획

□ 원자재 가격상승 파급효과

- 현재 독일 내 철강가격은 지난 15년 이래 최고수준인데, 이로 인해 중앙은행의 동전발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
- 석탄가격은 올해 들어 전년대비 약 40% 인상되었으며, 철광석은 17%, 고철가격은 32% 가량 인상
- 이로 인해 금속, 기계, 건설업계의 원가부담 증가 우려
- 독일 공작기계 조합에 따르면, 올해 상반기 중 독일 기계류 가격은 전년대비 최대 50%까지 인상

바. 프랑스

□ 향후 유가 전망

- 단기적으로는 50달러 이상의 고유가 지속(WTI 기준), 장기적으로도 원유수급 불균형 심화로 가격상승 압력이 높을 전망
- 단기적으로는 수급불균형 해소가 쉽지 않아 원유가격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, 장기적으로도 소폭 하락은 있겠지만 원유 공급 확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유가불안 요인 상존

□ 고유가 파급효과

- 프랑스의 경우, 1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,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 해오고 있어 고유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
- 현재 프랑스의 석유소비는 1970년대 초반에 비해 20%이상 감소했으며, 중동지역에 대한 원유수입 의존도도 75%에서 25%로 하락
- IMF는 고유가 영향에도 불구하고 2005년 프랑스 경제성장률을 2004년 2.6%, 2005년 2.3%로 EU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
- 다만, 고유가 기조가 장기화 될 경우 프랑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가계소비와 공공지출 감소로 경제성장률 하락 우려

□ 정부 대책

- 10월 말까지 고유가 관련 종합대책 수립 예정
- 프랑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, 정유, 자동차,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 마련 중

○ 장기적으로 바이오 연료를 대체에너지로 적극 개발

- 주요 정책은 바이오 연료 생산을 현재 42만톤에서 125만톤으로 대폭 늘리고 바이오 연료의 원료가 되는 농작물 재배면적도 백만ha 이상으로 확대
- 이 외에 향후 3년 동안 2십만톤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춘 바이오 연료 공장을 4개 건설

□ 원자재 가격상승 파급효과

○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은 자동차 부품, 금속포장, 가전 등

- 현재 매월 5~10여개의 자동차 부품 및 하청업체가 도산하고 있으며, 금속 가공업체의 파산도 증가세

○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악화가 예상되는 기업의 투자등급 하향 조정

- 프랑스 투자가들은 가전제품, 자동차 부품생산 기업 등의 수익성이 0.1~0.2% 정도 악화될 것으로 분석

○ 원자재 확보 부족, 기업이윤 감소

-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해 대기업들처럼 안정적 원자재 확보가 어려워 철강 등 원자재 확보에 비상
- 가전업체들은 최근 아시아 기업들의 성장으로 시장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, 원자재 가격상승분을 제품가격에 반영시키는 것이 어려워 기업이윤이 계속 감소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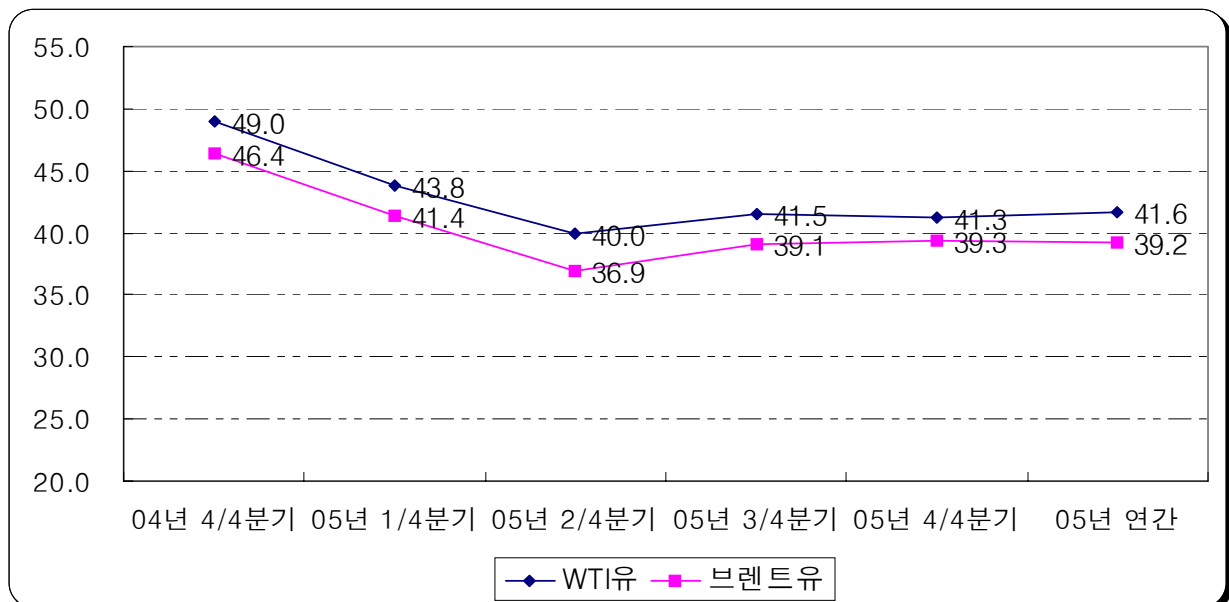
사. 영 국

□ 향후 유가 전망

- 당분간 50달러 수준의 고유가 유지, 내년 초에는 40달러 초반에서 안정세 유지

<향후 유가 전망치>

(단위 : \$/b)



자료원 : PIRA, 2004.9.30

□ 고유가 파급효과

- 영국은 북해산 브렌트유 생산국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고유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
-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(NIESR)는 최근 발표자료에서 유가가 42달러 수준에서 유지된다 하더라도,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

○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기업 수익률은 최고치 갱신

- 올해 연초부터 이어진 고유가 행진에도 불구하고 2/4분기 기업들의 순자본 수익률이 13.8%로 집계되어 지난 99년 1/4분기 이후 최고 수준
- 다만, 고유가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하반기 부터는 기업 수익률이 다소 하락할 전망

○ 원유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

- 원유수입 비용 증가로 2/4분기 무역수지 적자액이 145억 파운드를 기록, 전년 동기 111억 파운드에 비해 크게 증가
- 원유 생산으로 인해 높은 흑자수준을 유지해왔던 원유부문 무역수지도 고유가의 영향으로 2/4분기 흑자폭이 8억 파운드로 감소되었는데, 이는 최근 13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

□ 정부 대책

○ 고유가 현상보다는 북해산 원유 생산감소 문제를 더 우려

- 영국 정부는 북해산 원유생산 감소와 이에따른 원유수입 확대에 의한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가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

□ 원자재 가격상승 파급효과

○ 제조업 분야에 별다른 타격은 없으나, 원가상승으로 기업이익 감소

- 영국 제조업협회(EEF) 발표에 따르면, 아직까지 제조업 분야에 큰 영향은 없으나, 원자재 가격 불안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기업이익이 감소 추세

아. 브라질

□ 향후 유가 전망

- 배럴당 50달러를 넘어 추가 상승할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, 향후 유가 움직임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렵다는 입장
- 정부 및 관련기관들은 최근의 유가 급등 원인이 수급불균형에 있기 보다는 투기세력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
- 이로 인해 향후 유가는 매우 불확실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

□ 고유가 파급효과

- 브라질은 현재 석유 자급자족이 가능해 국제 유가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
- 경제기관들은 최근의 고유가에도 불구하고, 브라질의 올해 GDP 성장률이 연초 전망치(3~3.5%)을 넘어 4.5~4.8%에 이를 것으로 전망

<브라질 석유 수급전망>

(단위 : 천배럴/day)

구 분	2002년	2003년	2005년	2007년	2010년
소비량	1,749	1,805	1,850	2,010	2,181
생산량	1,500	1,590	1,850	2,220	2,400

자료원 : Petrobras

- 단지, 최근 브라질 경기 호조세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 물가가 다소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

□ 정부 대책

- 단기적으로 국내유가 인상, 장기적으로 자원개발 강화
 - 브라질 정부는 최근의 고유가로 인해 국내 유가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, 인상시기 및 인상폭에 대한 검토 작업 시작
 - 장기적으로 고유가 시대에 대비, 원유탐사 및 개발을 강화해 원유 수입규모를 축소할 계획

□ 원자재 가격상승 파급효과

-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최대 수혜국 중 하나
 - 브라질은 광산물 등 세계적인 원자재 수출국이므로 철강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으며, 원자재 수출 단가 상승으로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

자. 대 만

□ 향후 유가 전망

- 현재의 유가 급등에 대해 단기적 현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
 - 최근의 유가급등을 초래한 멕시코만 허리케인 피해, 유코스社 사태, 나이지리아 정정불안 등은 모두 단기적 사태로서 곧 해결될 것이므로 향후 유가는 배럴당 40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
 - 반면, 최근의 고유가 행진이 근본적인 원유수급 불안정에 기인하고 있어, 장기적으로 유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도 일부 존재

□ 고유가 파급효과

- 물가상승 우려 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상황
 -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, 대만 산업 구조가 IT산업 위주로 재편되어 있어, 산업생산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

□ 정부 대책

- 물가 및 석유제품 수급안정 정책 등 추진
 - 대만 정부는 지난 9. 29일 긴급회의를 소집,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, 에너지 절약 대책 등에 대해 논의
 - 물가상승을 우려, 가격동향 파악 및 전기/수도 사용료, 영업세 상향 조정 계획 보류

차. 인 도

□ 파급 효과

- 인도의 세계 석유 소비비중 크게 증대(모건 스탠리)
 - 인도의 전체 석유 소비의 70%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, 총수입에서 석유 수입의 비중이 30%에 달해 유가에 취약한 경제구조
 - 유가가 5불 인상될 경우 인도의 경제성장은 0.5% 하락
 - 세계전체 석유소비에서 인도의 비중은 1993년 2.5%에서 현재 4-5%로 증가하여, 세계 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증가

□ 고유가에 따른 정부 및 기업의 대책

- “석유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정부/기업/소비자가 공평하게 분담토록 한다”는 원칙하에 정부는 주로 세금 인하를 통한 부담 경감에 주력
 - 석유제품의 소비세 인하(8월중)
 - 휘발유는 기존의 30%에서 26%로, 디젤은 14%에서 11%로, LPG는 16%에서 8%로 각각 인하
 - 원유 관세를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검토 중
- 중동 산유국에 대한 아시아 주요 소비국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
 - 인도의 주된 원유 수입대상국은 걸프지역과 나이지리아로, WTI 및 브렌트산에 비해 가격 인상폭이 적어 경제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

□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반응 및 대책

- 철광석 수출규제 검토 중
 - 철광석의 수출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본과 한국 등 장기공급계약에 의한 수출은 2006년까지 보장될 것으로 알려짐
- SAIL(인도 철강 공기업), 호주 BHP Billiton과 전략적 제휴
 - SAIL은 2012년까지 현재 13백만톤의 철강 생산규모를 20백만톤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하에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중

○ 인도 철강업계, 설비 확장에 주력

- SAIL, 설비 확장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발표(8월중)
- Tata철강, 2.8억불을 투자하여 싱가포르 NatSteel 인수(8월중)

○ 철강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(8월중)

- 비합금 스틸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15%에서 10%로 인하
- 고철용 폐선박에 대한 관세를 10% 인하
- 철강 스크랩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5%에서 관세 면제

3. 시사점

□ 당분간 高油價 기조가 이어진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

-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, 이상 기후 등으로 원유 수급 차질
- 중국 등 고속성장 국가들의 원유 수요 급증
- 원유 재고량 부족, 난방유 등 계절적 수요 증가
- 2005년 유가는 서부텍사스 중질유 기준 약 40달러 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

<국제유가 전망>

(단위 : 달러/배럴)

기간	WTI	Brent
2004. 4/4	49.00	46.40
2005. 1/4	43.85	41.45
2005. 2/4	40.00	36.95
2005. 3/4	41.50	39.15
2005. 4/4	41.35	39.35
2005 연간	41.65	39.25

자료원 : PIRA (2004.9월말)

□ 철강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역시 연초의 높은 가격대 지속 중

- 미국, 중국 등 최대 교역국의 경기 위축 요소로 작용
 - 세계 수출호조세 둔화 가능성
- 주요 산업 내 원가상승 부담 증가

□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가상승을 유발, 세계 경제회복 지연 우려 점증

- 소비 및 산업생산 위축, 교역 둔화 등의 현상 우려
 - 자동차, 항공, 가전, 건설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음.

- 일부 투기자금의 개입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요소 확대

□ 각국은 고유가 시대에 대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등의 정책을 시행

- 일본 : 석유의존도 축소,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,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

- 1차 오일쇼크 당시와 비교 시 현재의 석유의존도는 2/3 수준

→ 유가상승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

- 석유 공급원 다변화

- 엔고의 진전으로 GDP 대비 원유 수입비중 감소

- 원유 수입비중 GDP의 5%(1980) → 1%(2003)

- 산업 및 경제전반의 에너지효율 우수성

※ GDP 1백만불 산출 시 필요한 원유환산 에너지량 (BNP 분석)

- 일본 92.2, OECE 평균 191.3, 미국 254.1

- 친환경 대체에너지 개발

- 비화석 에너지, 가스체 에너지로의 전환

- 화석 연료의 클린화 및 고효율 이용기술의 개발, 도입

- 미국 : Exxon, Mobil, Shell 등 석유 메이저를 중심으로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추진
- 캐나다 : 최근 국내 철강 수급 원활화를 위해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철회
- 중국 : 석탄, 천연가스 등 대체 원료 공급 정책, 원유비축량 확대 및 수입선 다변화, 산유국과의 외교협력 강화
 - 최근 대대적인 석유비축고 건설 작업에 돌입
 - 현재 석유자급도 60%로 국제유가 상승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으나, 고유가 장기화 시 산업생산 및 수출에 타격 예상
- 독일, 프랑스 : 바이오 연료 등 대체에너지 적극 개발 끝.